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김재희 · 주은선¹⁾

덕성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머니 세대와 청소년 세대별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조사하고 세대간의 전이 현상을 살펴보고 부적응 청소년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기 부모역할이 발달적 측면에서 성장 변화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부모-자녀유대질문지(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사용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반 중학교 3학년 학생 357명과 그들의 어머니 357명을 대상으로 하고, 부적응청소년 집단은 기출이나 비행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임시로 기거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부모가 있는 13세-18세 청소년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어머니 세대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더 온정적으로 지각하지만, 일반청소년 세대에서는 아버지를 더 수용적이고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태도에 있어서 전이 현상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육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제-적대유형이 가장 많이 세대간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부적응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부모의 돌봄을 낮게 지각하고 과보호는 높게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의 분포 역시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핵심어: 지각된 양육태도, 세대간 전이, 부적응 청소년

1) 연락처:

김재희, 유나카운셀링센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163, 한국걸스카우트회관 6층 T:732-0096

E-mail: kimj@kuc.or.kr

주은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T: 901-8596

E-mail: esjoo7@hanmail.net esjoo@center.duksung.ac.kr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Becker, 1964; 오성심, 이종승, 1982), 그리고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에 대한 반응 형태로 표명되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김재은, 1974).

역사적으로 양육태도연구를 살펴볼 때, Freud(1952)는 초기경험을 강조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체계적 연구와 이론화를 이루었다. 그는 영유아 초기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요람에서의 경험은 잠재의식화 되어 후일에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7세기까지는 엄격한 훈육과 체벌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18세기에서야 양육태도와 관련된 지식의 증가와 부모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이원영, 1983). 인지이론의 Piaget에 의하면 아동의 지능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발달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인지발달이 자연적이고 자발적이라 하였지만 그 환경 가운데 훈련의 효과, 그로 인한 발달 속도의 차이 등은 다음세대 연구가들의 초점이 되어왔고, Erikson은 Freud와 같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도 성인후기까지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중시하였다(서봉연, 이순형 1998).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유형이 분류되었다. 처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론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인데,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하였지만 임상사례에 의한 부모의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을 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상

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이원영, 1983). 이후 Schaefer, Richard 등(1959)은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신생아기부터 초기청년기까지 약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양육방식에 관한 가설적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두 개의 차원 즉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관계를 다루는 애정-적대(love-hostility)차원과,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부과하는 통제와 제한을 다루는 자율-통제(autonomy-control)의 차원으로 나누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역할유형을 구분하였다. 애정-자율적인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와 허용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 또 자녀에게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통제나 복종을 피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다.

애정-통제적인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많이 제약하는 것으로서 의존성 조장, 과보호, 소유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따라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의존적이며 불안정한 정서를 갖게 된다.

통제-적대적인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아동의 행동에 대해 체벌을 하는 것으로서 권위적, 독재적, 반복적 요구, 거부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런 부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하여 일관성 없는 태도로 심하게 훈육하며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아동의 행동과 태도를 평

가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처벌을 가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복종적, 반항적, 공격적, 적대적이므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자율-적대적인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써 거리감, 무관심, 태만, 냉담한 태도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녀는 불안정한 정서와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Schaefer, 1965). 그 외에도 Baumrind(1966), Maccoby와 Martin(1983) 등이 양육태도를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양육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식정도이다. Medinus 등(1965)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리 지각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실제 행해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보다는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Schaefer 또한 초기에는 어머니에게 양육태도를 묻는 형식으로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연구해오다가 후에는 자녀에게 자신의 부모의 양육방식을 묻는 척도(CRPBI-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측정도구도 Schaefer의 방식으로 분류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이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Gecas & Schwalbe,1986;

Grove,1980; 권순명,1993; 허정철,1997; 김미나, 1998), 태도, 가치관, 도덕성, 자아개념, 성취동기, 통제귀인, 그리고 자아정체감 등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Maccoby & Martin, 1983; 이동영,1997; 배숙진,1998; 권순명,1993; 이숙,1988).

Sears(1965)는 부모의 양육방법, 양육조건 등은 개인의 성격발달을 결정해 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으며, 아동의 성격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은 임상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우울증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로 전성일 등(1996)은 어머니의 낮은 돌봄과 적대적 양육태도가 우울과 우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문제를 심하게 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아버지의 간섭을 지나친 통제와 억제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 또한 이런 행동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기술이 발달할 기회를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Patterson,1982).

Blatt 등(1979)은 우울증 환자가 보는 그들 부모는 무감동, 간섭, 독립성과 자율성을 방해하는 특징들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는 정상인보다 아이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보호적이고 간섭이 많으며, 가족내의 지나친 감정표현, 즉, 비판적인 언사나 감정 개입 등은 정신분열증의 재발과 밀접하다고 하였다. 한편 과보호(통제, 억제 지나친 간섭 등의 요인)는 건강염려증을 비롯하여 동통에 대한 과도한 반응

을 보이는 것보다도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보호하는 어머니는 과거에 그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ker & Merskey, 1982; 송지영, 1992, p.987).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질은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그러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이경숙, 신의진 1998). 특히 결혼을 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서로간의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아동기에 부당한 양육을 받은 성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의 관계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보았다(Belsky, 1984; Belsky & Pensky, 1990; Belsky & Vondra, 1993; 김용태, 2000).

양육태도의 전이를 가족치료 입장에서 보면, Bowen의 다세대 전이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정서적인 문제가 개인을 넘어서 가족뿐 아니라 핵가족을 넘어서 여러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P(Identified Patient: 가족 내에서 지목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그의 부모의 관계성의 결과이고, 이는 또 그 조부모의 관계성의 결과로 수세대로 거슬러 이어지는 것이다. 다세대 전이과정은 비슷한 분화 정도의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자녀에게 낮은 분화를 가져오게 하는 가족 투사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문제는 모든 가족원이 행위자이고 반응자인 다세대적 연쇄의 결과로 여겨진다.

Bowen은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자녀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3세대가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최소한 3세대의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임을 강조하였으며(송정아, 최규련, 1997, p.205), Parker(1979a; 1979b;)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병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모델링, 관찰학습, 자기효능, 강화와 모방의 개념으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속성을 설명하면서 학대, 신체적 처벌과 같은 양육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부모의 양육방식을 사용하게 되거나 엄격한 신체적 훈육 및 처벌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규범이 부모로부터 형성되어 양육태도의 기저를 만들게 된다(Simons, Whitbeck, & Conger, 1991).

Bowlby의 애착이론에서도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세대간 전이를 말해주고 있다. 비교적 안정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개인들은 지원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또한 어린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격려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안정된 애착과 자기와 타인에 대한 바람직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in과 그의 동료들(1985)도 Bowlby와 일치되게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닌 영아의 부모들은 성인애착면접을 통하여 역시 자율적-안정된 애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애착은 영아-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작동모델의 형성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상속됨으로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불건강이 세대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고 한

다(Bowlby,1973). 또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부부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역할양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어 아버지의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의 철회행동이나 수줍음 혹은 우울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Cowan 등,1996; 장휘숙,1998, p.191- 193).

한편 가출청소년의 가정과 관련하여 Whitebeck등(1997)은 그들 부모의 감독, 자녀에 대한 온정 및 지지도는 낮은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태도 가정폭력 및 가족원간의 성적 학대는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김헌수,1998).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행행동연구에서 부모의 적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 태도가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문제와도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연구되어 왔다(Rey & Plapp,1990). 또한 적대적이고, 처벌적이고, 수치감을 조장하고, 거부적이거나 과잉통제적인 양육행동이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간에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Sears RR, 외1953, Becker1964, Perris C, 외1983).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손석한, 노경선등(2001)등은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부모의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의 긍정적 양육행동 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들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반면,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 비밀관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여러 문제행동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재광 등(1998)에 의하면 선행연구 Carlson 등(1980)의 우울과 불안이 비행청소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들과 같이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들이 더 불안하고 우울했으며 억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방식은 부적응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 없는 통제는 자녀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도 여겨지고 있다(Sato T, Sakado K 등1998, McKinnon A, 등199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어머니 세대와 청소년 세대별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조사하여 유형을 알아보고 둘째, 세대간의 전이 현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부적응 청소년들은 어떻게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가를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교해 봄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발달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2개의 중학교와 경기도에 있는 2개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15-16세) 남녀학생 357명 (남:157명, 여: 200명)과 그들의 어머니 3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교집단인 부적응 청소년들은 서울시내 사회복지 기관 7곳과 지방의 사회복지기관 5곳, 그리고 상담소 1곳과 보호관찰소 1곳에서 비행 또는 가출과 관련된 부적응 청소년 (13-18세)남녀 134명 (남:67명, 여: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참여한 인원은 청소년 491명과 어머니 357명, 총 8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한국판 부모-자녀 유대 질문지 (Parental Bonding Instrument : PBI)를 사용하였다. Parker, Tupling & Brown (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의해 개정된 문항을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16세 이전까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묻는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의 질문이며, 4점 척도로 평정한다. 25문항 중 돌봄 척도(care scale) 12문항, 과보호 척도(overprotection scale)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봄 척도는 온정(다정성-냉정성)에 관한 것으로 온화함과 애정, 이와 대조되는 무관심과 무시와 관련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은 것이다. 과보호 차원은 부모의 통제, 간섭, 과잉보호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제적이고 침입적, 과보호적임을 의미한다.

PBI를 개발한 Parker 등(1979)에 의하면 사랑과 공감-냉정과 무관심의 온정(돌봄)차원과 과보호와 간섭-독립 자율성과 격려의 통제(과보호)의 2개의 차원에서 가장바람직한 결합형태는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의 형태라고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어머니 과보호 0.86, 어머니 돌봄 0.81, 아버지 과보호 0.91, 아버지 돌봄 0.92로써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p < 0.001$). 한국판 PBI의 내적 신뢰도는 어머니 과보호와 돌봄이

.87, .87 그리고 아버지 과보호와 돌봄이 .88, .90이었다.

양육태도 유형의 세대별, 비교집단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돌봄과 과보호 점수의 각 집단 평균을 중심으로 돌봄이 높고 과보호도 높으면 Schaefer의 유형 중 애정-통제유형, 돌봄이 높고 과보호가 낮으면 애정-자율유형, 돌봄이 낮고 과보호만 높으면 통제-적대유형, 돌봄과 과보호 둘다 낮으면 자율-적대유형으로 비교와 전이를 연구하였다.

자료처리

어머니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양육태도 유형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분포도비교를 하였다. 어머니 집단과 일반 자녀 집단의 전이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원점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했고, 양육태도유형의 일치정도와 경향성을 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일반청소년 집단과 부적응청소년집단에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집단비교를 위해서 t-검증을 하였고,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처리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C+ package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어머니세대와 일반 청소년 세대에서 지각된 양육태도 유형 비교

1) 어머니세대와 일반 청소년 세대에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의 평균비교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PBI를 실시한 결과 각 하위요인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어머니세대와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평균

양육태도하위요인		어머니 평균/표준편차	일반청소년 평균/표준편차
어머니	돌봄	22.9 / 4.7	25.6 / 4.8
	과보호	12.5 / 3.6	12.0 / 4.1
아버지	돌봄	22.1 / 5.9	23.9 / 5.7
	과보호	12.6 / 3.7	10.4 / 4.2

일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돌봄과 과보호에서 둘 다 평균점수가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이 더 높다. 일반 청소년 집단이 어머니양육태도를 더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양육태도보다도 더 통제적으로도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세대와의 비교에서는 일반 청소년 세대가 자기부모의 양육태도의 '돌봄'점수를 더 높게, '과보호'점수는 더 낮게 지각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과보호 점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전 세대에는 아버지를 좀더 통제적으로 지각한데 반해 요즘 세대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통제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2) 어머니세대와 일반 청소년 세대에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분포 비교

어머니집단에서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측정된 PBI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유형을 구분하고 세대별로 비교하여보면 표 2와 같다.

어머니세대에서 지각하는 외조모 양육태도에 비해서 청소년 세대가 지각하는 자기어머니의 양

육태도는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많으며,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경우는 줄었다. 애정-통제유형과 자율-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양상은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에 대해서 이미 안정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세대와 사춘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소년 세대의 특성차이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이해하려는 것보다 복잡한 사회에서 많은 통제를 가하는 부모들의 현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기억에서는 어머니세대보다 자녀세대가 통제-적대유형이 줄어든 것은 덜 독재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율-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줄었고 애정-통제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늘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어머니 세대의 아버지보다 현재 청소년 세대의 아버지가

표 2. 각 세대에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비교

양육태도유형	어머니 세대 %		일반청소년 세대 %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애정-통제유형	19.9	17.9	18.8	22.1
애정-자율유형	36.7	32.5	29.1	31.9
자율-적대유형	15.4	14.3	16.2	13.7
통제-적대유형	28.0	35.3	35.9	32.2

더 따뜻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세대의 아버지들 보다 현 세대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더 가깝게 다가와 주고 자녀에게 어머니 쪽보다 더 수용적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세대별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여 볼 때는 어머니세대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더 온정적으로 지각하지만 자녀세대에서는 아버지를 더 수용적이고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양육태도의 전이

1) 양육태도 하위요인 돌봄과 과보호의 세대간 상관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외조모양육태도 하위요인 '돌봄'과 '과보호'점수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돌봄'과 '과보호'점수가 세대간에 상관을 보았을 때 상관계수는 돌봄 .13, 과보호 .10 ($p < 0.01$)으로 세대간 상관관계는 낮았다. 결국 세대간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은 서로 상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뚜렷한 전이 현상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육태도를 하나의 도구로 보려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예시한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외부요인으로 인해 완만한 전이 현상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

2) 양육태도 4가지 유형이 있어 어머니와 일반 청소년 집단 세대간 일치율

전반적인 양육태도 하위요인의 전이를 살펴보았을 때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어머니(청소년의 외조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의 일치정도와 경향성을 보기 위해 χ^2 검증은 하였는데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어머니, 즉 일반청소년의 외조모 양육태도유형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유형간에는 애정-자율유형과 통제-적대유형에서 제일 많은 비율로 일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어머니

표 3 외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의 χ^2 검증 빈도표

		어머니의 양육태도유형				Total	
		애정-통제	애정-자율	자율-적대	통제-적대		
외조모의 양육태도	애정-통제	명	16	15	12	28	71
		%	22.54	21.13	16.90	39.44	19.89
	애정-자율	명	23	48	19	41	131
		%	17.56	36.64	14.50	31.30	36.69
	자율-적대	명	9	21	6	19	55
		%	16.36	38.18	10.91	34.55	15.41
	통제-적대	명	19	20	21	40	100
		%	19.00	20.00	21.00	40.00	28.01
Total	명	67	104	58	128	357	
	%	18.77	29.13	16.25	35.85	100.00	

df = 9 $\chi^2 = 13.46^*$ * $p < 0.5$

표 4. 두 비교집단에서 양육태도 각 하위요인점수 평균비교 t-test

양육태도	비교집단	N	Mean	t	SD
모의 돌봄	일반청소년	357	25.63	6.86***	4.8
	부적응청소년	134	20.66		7.8
모의 과보호	일반청소년	357	11.96	-4.77***	4.09
	부적응청소년	134	13.99		4.43
부의 돌봄	일반청소년	357	23.87	6.37***	5.72
	부적응청소년	134	19.16		7.81
부의 과보호	일반청소년	357	10.40	-8.85***	4.28
	부적응청소년	134	14.35		4.74

***p<0.001

의 양육태도에서는 통제-적대유형의 비율이 역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 세대에서보다 자녀 세대가 자기어머니를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많은 것은 대체적으로 사춘기자녀의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와 아직 통제와 간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자기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자율-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자녀도 그대로 지각하는 경우보다 애정-자율유형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그 다음으로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기어머니를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자녀도 그 어머니를 애정-자율유형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면서도 2순위로는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

이었다.

3.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비교

1)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하위요인의 집단 간 비교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돌봄과 과보호 평균점수를 일반 청소년 집단과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 비교해 보면 부적응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돌봄 요인의 평균은 더 낮고 과보호는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비교 결과로는 일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모든 하위요인평균점수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참조). 즉 비교집단인 부적응 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통제

표 5. 부모 양육태도 유형별 분포 비교

양육태도유형	일반청소년 집단 %		부적응청소년 집단 %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애정-통제	18.8	22.1	11.9	20.9
애정-자율	29.1	31.9	13.4	10.4
자율-적대	16.2	13.7	14.2	8.2
적대-통제	35.9	32.2	60.4	60.4

적이며 비 수용적, 비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유형 분포비교

일반 청소년 집단과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유형의 비율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모든 유형에서 적대-통제유형으로 부모를 지각하는 경우가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 월등하게 높고,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낮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자율유형에서는 어머니 양육태도를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보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낮다. 이는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더 높게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머니 세대와 청소년 세대별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세대간의 전이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들인 사회에 부적응 청소년들은 어떻게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가를 일반 청소년집단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다루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한다.

첫째, 어머니 세대에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일반 청소년세대에서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자녀세대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돌봄'과 '과보호'점수를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돌봄'과 '과보호'점수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것은 자녀가 어머니양육태도를 더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보다도 더 통제적으로도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양육태도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으로 가장 많은 비율은 애정-자율 유형보다 적대-통제유형이 더 많았다. 이는 일반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머니양육태도를 독재적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이시기를 벗어나 소년 소녀가 되어 한참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스스로 독립하고 싶은 의지가 많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 편에서도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마주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지도 상대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이 어머니의 낮은 돌봄, 높은 과보호요인과 관련이 있음은 이 비율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전성일 1996; Becker, 1964; Parker, 1979a).

어머니세대와의 비교에서는 자녀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더 모정보다 부정을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자율-적대유형과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애정-통제유형의 비율은 늘었다. 즉, 현 자녀세대의 아버지는 어머니 세대의 아버지, 아동의 외조부 보다 자녀에게 더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대하여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춘기시기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애정 있고 자율로 지각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낮은 참여로 인해 어머니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이 결과가 나타내 주는 것으로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아버지의 개입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현 세대의 청소년기 자녀에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버지의 역할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 세대와 청소년 세대별로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세대간 상관인 낮은 것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원점수에서 어머니 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양육태도가 그대로 전이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양육태도유형의 세대간 일치율의 경향성을 보면 어머니가 자기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자율-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자녀도 그대로 지각하는 경우보다 애정-자율유형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그 다음 많은 비율로써 자율-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기어머니를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자녀도 그 어머니를 같은 유형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면서도 2순위로는 통제-적대유형으로 많이 지각하고 있어 양육태도의 역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통제-적대유형의 높은 일치율은 사춘기 자녀세대가 자기어머니를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많은 까닭이라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과보호(통제, 억제 지나친 간섭 등의 요인)하는 어머니는 과거에 그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많았다는 연구결과(Baker & Merskey, 1982; 송지영, 1992,

p.987)나, 아동기에 부당한 양육을 받은 성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의 관계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보는 기록들과 같은 맥락으로 비교할 수 있다 (Patterson, 1982; Belsky, 1984; Belsky & Pensky, 1990; Belsky & Vondra, 1993).

마지막으로 사회에 부적응 청소년들은 어떻게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가를 일반 청소년집단과 비교해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돌봄'의 평균값에서는 부적응 청소년 집단이 더 낮게, '과보호'에서는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비교집단인 부적응 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통제적, 비 수용적, 비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모든 유형에서 통제-적대유형으로 부모를 지각하는 경우가 부적응 집단에서 60%이상으로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보다 두 배나 높고 (32%),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특히 아버지 양육태도의 애정-자율유형에서는 어머니양육태도를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자녀 집단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더 많이 애정-자율유형으로 지각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Patterson(1982), 전성일(1996) 등과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과다한 간섭과 통제요인이 행동장애를 일으키며, 적대적이고 과잉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하게 일치율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Ray & Plapp, 1990).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확대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비교집단을 통하여 확실하게 더 강조하게 된다. 또한 부모와 사춘기 자녀 사이에 갈등이 되는 요소들에 관하여는 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부적용 청소년을 연구한 기록들을 보면 연구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정도, 낮은 결합력, 높은 갈등, 낮은 경제수준 등이 비행청소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Fowler,1980; MaGee,1984; 조동환 외1997; 박범룡 외1999). 또한 부적용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교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외현적으로 흡연, 음주, 폭력(김현수,1998)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부적용 양상이 관련되어 있고(Farrington,외1982; 이재광,외1998) 특히 우울, 불안과 연관이 있어(Conger, & Perterson, 1984) 특징적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공격행위나 약물남용, 난잡한 성행위 등 비행의 기저에 가면성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Weiner,1980; Krakowski,1970; 박지도,외 2001). 따라서 부적용 청소년에게 부모의 양육태도만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착과 관련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Kassel(1996,재인용)은 애착에서의 자기존중감,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면서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이 자신과 중요한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으로 구성되는 내적표상을 형성하여 역기능적 신념과 낮은 자기개념을 갖게 되고 이것이 다시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노라, 2000).

따라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안정애착의 비율이 확연히 적은 부적용청소년 집단은 부모의 양육태도도 애정적이지 않고 통제적으로 인식하며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역기능 적인 애착형성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 신념을 지니며, 그것을 매개로 불안과 우울같은 정서적 부적용 양상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재희, 주은선2001).

한편 설문조사를 위해 부적용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였을 때의 실상은 거의 50%이상이 부모가 없거나 결손가정의 자녀들임을 알 수 있었다. 집단 비교연구를 위해서 결손가정의 자녀들의 설문은 모두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부모가 제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부적용 청소년 집단에서 결손가정의 비율이 나타내주는 현상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 이 또한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부적용 청소년 가족의 낮은 결속력과, 비정상적인 가족구조가 높다는 연구와 공통적인 점이였다(Fowler,1980; MaGee,외1984; 조동환 외,1997; 박범룡외1999).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로 애착만 관계란 고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변화를 하든지 악화되는 변화를 하게 되든지 결별과 이별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비율이 통제-적대유형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자기부모를 지각하고 있는 것은 어렸을 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월이 흘러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읽을 수 있다. 영유아기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애

정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았겠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자녀의관계도 변함을 어머니세대를 비교하여도 알 수 있다.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조망할 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역할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부적응 청소년의 부모와 자녀관계를 본다면 적대-통제 유형의 비율이 확연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시기의 자녀보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자기부모에게 더욱 더 애정과 수용 그리고 자율적으로 대하는 유형의 양육태도를 요구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시기의 자녀는 어느 때보다 지지와 격려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적응 청소년 집단의 설문조사에서 비교연구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50% 이상의 편모나 편부 가정, 즉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관계 와해되어버린 가정에 부적응 자녀가 많은 것은 더욱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신과 임상에서도 정신증, 우울증, 신경증에 적대-통제유형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Baker & Merskey, 1982; 송지영, 1992, p.987). 또한 부적응 집단과의 비교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춘기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도 여전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들은 청소년들을 대하는데 있어 돌봄은 적고 지나친 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인 자녀입장에 있어서나 부모에게 있어서 어느 쪽에서든지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대유형으로 지각하게 되는 요인들, 즉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어느 요인들이 가장 갈등이 많이

일으키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도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관계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시간과 분량의 한계로 인해 남녀구분 비교의 결과를 볼 수 없었으나 다음 연구에서는 애착과 관련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성별과 자녀의 문제유형중심으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적응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단지 부모의 양육태도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변인들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나(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주은선(2001).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13권 3호, 107-125
- 김현수(1998). 청소년 비행행동의 판별요인분석. 신경정신의학 제 37권 3호
- 박범룡,류영호, 조동환, 김정기(1999). 불량행위 청소년 가족폭행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4). 신경정신의학38; 583-590
- 박지도, 최현경, 장우성, 조동환, 김정기(2001). 불

- 량행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병리
(V). *신경정신의학* 40-4, 640-654.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
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최규련(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강
원출판: 도서출판 하우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Parenting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제31권, 제
5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신경정신의학회지*40(4)
- 서봉연, 이순형(1998) 발달심리학-아동발달 중앙
적성출판사
- 신노라(2000). 성인애착유형과 대인불안수준의관
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
동의 지각과 정의특성과의 관계, *한국행동
과학연구소* 제11권 1호
- 이경숙, 신의진(1998). 반응성애착장애 아동의 부
모-아동 관계 개선 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1,(2).
pp88-106.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와 유아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광, 진태원, 조주연(1998) 비행청소년의 불안,
우울, 억압,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신경정
신의학* 37-3, 493-499
- 장휘숙(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
사
- 전성일(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
에서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정
신의학* 7-1, 34-43
- 조동환, 박영숙, 김정기(1997). 불량행위청소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5:1301-1311
- 허정철(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수
준과의 상관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Baker, B., Merskey, H.(1982). Parental
representations of hypochondriacal
patients from a psychiatric hospit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1:
233-238.
- Blatt, S.J., Wein, S.J. Chevron, E., Quinlan,
D.M. (1979).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88-397.
- Baumrind, D.(1966).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pp245-249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74-175.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Pensky, E.(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J. Steven-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193-217
-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arson, G, & Cantwell, D.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37, 179-183
- Conger J, J, Peterson, A. C. (1984). *Adolescent and You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pp. 114-251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1, 53-63
- Farrington, D.P, Biron, L., Le Blane, M. (1982): Personality and delinquency in London and Montreal. In J.C. Gunn & D.P. Farrington (Eds.), *Abnormal offender: Delinquen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w York: John & Wiley.
- Fowler, P. (1980). Family environmental and early behavioral development, A structural analysis of dependencies. *Psychological Report*, 47, 611-617
- Freud, S. (1952).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alysi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Gamsa, A. (1987). A not on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 291-294
- Gecas, V., & Schwalke, M. 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Grove, G. A. (1980). Perantl behavior and self-esteem in children. *Psychology Reports*, 47, 499-502.
- Krakowski, J. (1970). Depressive reaction of children & adolescence. *Psychosomatics*, 2 429-433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4). New York:

- Wiley.
- MaGee R, Williams, S., & Silva, P. (1984) :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hyperactivity and aggressive/hyperactivity Boy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Psychiatry* 23 : 280-284
- Medinnus, G. R.(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 McKinnon A, Henderson AS, Andrews G(1993). Parental affect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 a risk factor refined. *Psychol Med* 23 :135-141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rker, G. (1979a).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47
- Parker G. (1979b);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atterson GR(1982). A social learning approach to family intervention Vol 3. Coercive family process. Bugene, OR: Castalia
- Perris C, Eisemann M, Ericsson U, Knorrng L, Perris H(1983). Parental rearing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depressed patients. *Archiv Fuer Psychiatrie und Nervenkrankheiten* 233: 77-88
- Ra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Sato T, sakado K, Uehara T, Narita T, Hirano S, Nishioka Y(1998), Dys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evidence for the affect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 Med* 28(3);737-742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pp.413-424.
- Schaefer, E. S., Richard, Q. B., Bayley, N.(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95, pp.83-104.
- Sears, R. R Whiting JWM, Nowlis V, Sears

- PS(1953),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dependency in young childre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47:135-234
- Sears, R. R.(1965).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16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Wu Chyi-in. (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59-171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einer, I. B. (1980).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In J. An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pp114-251
- Whitebeck, L. B, Hoyt, D. R, & Ackley, K. A. (1997): Families of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 comparison of parent / caretaker and adolescent perspective of parenting, family violence and adolescent conduct. *Child Abuse Neglect*, 21(6), 517-528

A Study of Parental Bonding Perceived by Mothers and Adolescents

Jeahee Kim · Eunsun 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generation differences and transmission in parental bonding perceived by mothers and adolescents. Also, an average adolescent group was compared to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erceived parental bonding. 357 adolescents in 9th grade and their mothers living in Seoul and Kyung-ki area were selected. For the comparison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sample, 135 adolescents in juvenile delinquency program in counseling centers, social welfare offices and probation offices in Seoul and Kyung-ki area were selected.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developed by Parker, Tupling & Brown (1979) and revised by Gamsa (1987) was used in this study. PBI consisted of 25 questions and it was translated and validated by Song (1992) in Korea. In this study three questions were asked. First, what are the styles of parental bonding perceived by mothers and average adolescents? Second, is the perceived parental bonding transmitted from the mothers' generation to the adolescents' generation? Third, how are the parental bonding style perceived by a group of average adolescents different from a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 Results and further comments were suggested.

Key Words: Perceived Parental Bonding, intergeneration transmission of parental bonding, group of juvenile delinquency.